



# 초록 성남 성남이 행복합니다

‘초록 정원 도시’ 성남 선포



2015년 6월

## 성남시 공식 SNS

-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https://twitter.com/seongnamcity)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https://www.facebook.com/seongnamdiary)
-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https://www.seongnamdiary.com)
- 홈페이지 [www.snnvision.seongnam.go.kr](https://www.snnvision.seongnam.go.kr)

##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공보관
- 주 소 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콜센터  1577-3100
- 우편구독 신청 031-729-2078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공공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성남시청 광장, 휴일에 시민들이 텐트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 기린다



예부터 국운을 가름했던 역사의 중심지 남한산성이 위치한 성남. 지리적·역사적 안보 중심지답게 빨 빠르고 다양한 시책으로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6월 6일 제60회 현충일을 전후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전후(戰後) 세대들에게 보훈의 참뜻을 알리기 위해 범시민 호국보훈 행사를 연다.

## 6월 6일은 현충일… 국기 게양부터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추모의 날이다. 6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현충탑(수정구 태평4동 소재) 경내에서 보훈단체장과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갖는다. 범시민 현화운동도 오전 10시~오후 5시 현충탑(6.8까지)과 야탑역 광장에서 펼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자리를 마련한다.



수정구 태평4동 소재 현충탑

청소년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 초·중·고 등학생 현충탑 참배(6월 7~8일) ▲ 호국·보훈 사진전시회(6월 6~8일 현충탑, 황송공원, 산성공원) ▲ '호국안보, 민족정기, 6.25전쟁 상기' 등을 주제로 하는 초·중·고등학생 백일장대회(6월 6일 현충탑 경내) 등을 추진한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오전 7시~오후 6시 조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으로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는 시간을 가져 보자. 조기는 깃봉에서 깃 면 너비만큼 내려서, 집 밖에서 볼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자녀의 손을 잡고 현충탑을 참배한다면 자녀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독립유공자가 존경받는 성남

시는 독립유공자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6월 제정, 지원하고 있다.

생존 애국지사는 보훈명예수당 30만원, 광복절 위문 20만원, 생일 위문 20만원, 사망 시 위문 100만원을 지원하며,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본인과 배우자에게 의료비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도 보훈명예수당(5만원)과 명절·생일(100세 이상) 위문과 사망 위로금이 지급된다.

시 거주 55세 이상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등하교지도 등 일자리 사업도 3~11월 8개월간 진행된다. 2014년 7개월간 207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23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의 보훈회원은 노인일자리(50명)와 소일거리(137명) 사업에 참여한다.

시 거주 국가유공자는 1만2,690명. 특히 6월에는 저소득층 보훈회원 가족을 위문하고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표창하며 보훈단체장 간담회도 갖는다.

시는 보훈단체와 연계해 천안함 방문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갖고 시민 안보의식과 군부대 사기를 높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호국보훈 시책과 보훈단체 지원으로 앞서가는 호국안보도시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031-729-2824



성남은 합니다!

## 성남시 보훈단체(9개)

2015.2.현재

단체명	대표자	설립 연도	보훈처 등록회원(명)	주소
계			12,416	* 기타 274 미포함 (4.19, 5.1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이계순	1963	87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문인자	1963	85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송병조	1973	1,62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유순곤	1992	2,470	수정구 수정북로 134 (태평동, 보훈회관)

단체명	대표자	설립 연도	보훈처 등록회원(명)	주소
광복회 성남시지회	이용위	1991	20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박승환	2000	567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성남시지회	장근식	2001	2,291	
월남전참전자회 직할 성남시지회	최정수	1987	3,476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 성남시지회	박승환	2008	50	수정구 수정남로 10 (수진동, 제일프라자 4층)

성남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 후 1년

## 잊지 않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사랑방,  
성남시청. 그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한 많은 생을 살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며 인권수호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다.

정부등록 ‘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현재 생존자는 54분이다. 아직도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 를 왜곡하는 일본을 보면서 누군가

는 역사에 남겨야 할 그 일을 성남의 100만 시민이 이뤄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성남시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4월 15일 많은 시민들의 응원 속에 제막식을 가졌다. 전 세계에 설치된 다섯 번째 소녀상이다.

슬픈 듯 의연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단발머리 소녀상은 가로 180cm, 세로 160cm, 높이 136cm 규모이며 청동과 석재로 만들어졌다. 소녀상 옆에는 기림비가 설치돼 있다.



성남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성남시민모임 ‘소녀상 지킴이(회장 류재순)’도 발족해 매주 수요일 시청 광장의 소녀상 돌봄 활동을 하면서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라를 잊으면 모든 것을 잊는 것이기에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교훈 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의 당

연한 책임일 것이다.

성남시청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바람대로 다음 세대의 훌륭한 역사교육의 산실이 될 것을 기대한다.

시는 지난해 1월 미국 글렌데일시에 특사단을 파견해 평화의 소녀상 수호 의지를 국내외 언론에 알리는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생각한다

## 불곡산 전투 ‘썬더볼트’ 작전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뼈아픈 한국전쟁이 불발한 지도 벌써 65년이 됐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한 ‘휴전선’이라는 말이 아직도 전쟁은 진행형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전쟁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시민에게 친근한 분당의 명소 불곡산, 이곳에도 전운이 감도는 면취진 전쟁의 흔적이 있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젊디젊은 넋들이 아직도 우리 산하에 묻혀 세상 빛을 기다리고 있다.

1950년 11월 압록강까지 진격한 국군과 유엔군은 통일을 목전에 두고

인해전술로 개입한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해야만 했다. 영화 국제시장의 소재가 된 통한의 홍남부두 철수,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월 4일 다시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 삼척전선까지 밀리고 말았다.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썬더볼트(번개) 작전이었다. 1951년 수도 재탈환을 위한 작전으로 우리가 사는 성남의 불곡산, 용인 법화산, 하남 검단산 일대에서 벌어진 필사즉생의 치열한 전투였다. 파죽지세의 중공군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 주고 서울 재탈환의 분수령이 된 전투였다.



수많은 청년 국군이 이곳 불곡산에서도 피 흘리며 싸우다 장렬히 전사해 일부는 수습되고 또 일부는 그대로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불곡산에서 2013년 6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돼 현재까지 모두 4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견돼 반세기 넘게 묻혀 있던 그분들의 시신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성남시는 호국안보 도시답게 2015년 1월, 유해가 발견된 불곡산 입구(구 미동 217번지)에 ‘평화의 쉼터’를 만들어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안보 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했다.

녹음이 우거진 불곡산, 조국을 위해

산화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웃으며 산행하는 명소가 됐다. 이젠 불곡산에 오를 때마다 그들의 숨결을 싱그러운 바람으로 느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성남을 지키는 천사가 돼 우리를 맞아 주고 발전하는 성남을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오창석 기자 ocs2503@naver.com





## ‘문화도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다’

본시가지 성남시민회관 신축 계획 발표… 735석 규모 대극장, 주차장 기능 대폭 확충

옛 시청사와 얼굴을 마주하고 성남 문화를 이끌어 오던 본시가지의 성남시민회관이 역사의 뒤판으로 사라진다. 34년의 긴 역사 속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담당해 왔던 시민회관은 건축물이 노후 됐고, 낡은 음향장비와 방음문제, 특히 안전성 평가에서 B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노후 상태나 안전성 평가도 문제지만 시청사 이전 후 성남시의료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시민 행사를 위한 대관기능만 수행하고 있었을 뿐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황이었다. 적막한 그늘을 드리운 채 초라한 모습으

로 서 있던 그 자리에 지난 역사의 명맥을 잊게 할 활기찬 모습의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성남시의료원 신축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시민회관은 735석 규모의 대극장을 설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체력단련실·건강상담센터 등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주민사랑방·세미나실 등 시민들 간 소통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는 안식처

로 이용하고, 지하에는 의료원의 750면 주차장과 함께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해 야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키로 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회관 신축계획 발표 후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시민회관 신축으로 과거의 상권활성화를 기대한다”, “신축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 성남의 상징이었던 옛 시청사와 시민회관이 새 시대를 맞이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견인할 시립의료원과 시민회관, 두 랜드마크가 과거의 상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だ”고 답했다.

성남시민회관 철거는 올 하반기에 착수하며, 의료원은 2017년 말, 시민회관은 2018년 초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기간 중 시민회관을 대체할 곳으로 시청이나 구청,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원건립추진단 031-729-3643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 [행정혁신]

## ‘전국 최초’ 일반시민 체납 실태조사반 성남에 뜬다 75명 출범… 체납자 17만8,077명 집 찾아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체납 실태조사반이 성남지역에 뜬다. 성남시는 5월 4일 ‘체납 실태조사반’

출범식을 했다.

체납 실태조사반은 5월 18일부터 연말까지 17만8,077명 체납자(2개월

이상, 200만원 미만)의 집을 찾아가 실태조사 활동을 한다. 조사할 체납액 내용은 432억원에 이른다. 시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568억원(66만5,726건)의 27.3%이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 안내를 해 주거나 생활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체납 실태조사반의 몫이다. 잊은 거주지 이동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 납부 약속을 받는다. 고의적

인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알리고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 75명으로 구성된 체납 실태조사반의 활동은 관과 민이 하나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시장은 “조세는 공평한 부담이다. 징수비용이 더 들더라도 부당 체납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기초적인 상식을 성남시에서부터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징수과 세원관리팀 031-729-3273

## 외국인 방문단

**‘성남시 러시’ 이유 있었네**
**방글라데시 방문단,  
시민 행복 위한 정책에  
감동**

지난 4월 27일 방글라데시 공무원과 세계은행 관계자 등 9명의 방글라데시 방문단이 성남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재정위기를 극복한 성남시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날 방글라데시 방문단은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윤학상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당시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 들었다.

성남시는 2010년 판교특별회계 부당 전입금 5,400억원과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성남시장은 당시 취임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불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초기 재정운영과 예산삭감, 지방채 발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5,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3년 6개월 만에 정리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성남시를 재정 건전화의 모범 지자체로 꼽아 2013년과 2014년 연속 재정 분석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윤 국장은 “성남시는 올해도 경기도 세

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사회복지 예산도 73% 증가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은 시민복지로 이어져 시립의료원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층 무상 교복 지원, 무상 공공 산후조리 준비까지 공공 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단 중 몇몇은 윤 국장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필기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사례발표 후 방문단은 지방세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와 재정관리 사례, 조세체계, 지방세 징수율, 세수증 공무원 월급과 복지예산 비율 등 세금이 쓰이는 비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저 임금에

대에서도 궁금해 했다. 이 밖에도 이들 방문단은 성남시의 물 공급 과정, 쓰레기 수거와 처리 과정,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방법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성남 시장은 SNS를 활용해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방문단은 박수를 치면서 “very very nice”라며 감탄했다. 누를 후다 단장은 “재정위기를 극복한 성남시의 경험과 발전의 비결을 배우러 왔는데, 성남시의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고 방문소감을 전했다.

징수과 031-729-3272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재정위기 극복한  
성남시  
그 비결 배우러 왔어요”**

벤치마킹차 성남시를 찾는 외국인 방문단이 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성남시를 방문, 재정위기 극복 비결을 배우고 시민에게 개방된 시청사를 둘러보는 등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방글라데시 방문단에 이어, 5월 5일에는 미국 자매도시 오로라시의 스티브 호건 시장과 배키 호건 여사 부부가 성남시를 방문, 시민들로 북적이는 시청사 북카페와 홍보관, 분당율동공원 책테마파크, 판교어린이도서관 등을 둘러봤다.

오로라 시는 1992년 7월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도시로,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성남시에 파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러시아에서도 방문할 예정인 성남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넓히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청 하늘북카페. 미국 자매도시 오로라시 시장 부부

성남시는 중국 선양시 · 창춘시, 브라질 빠라시카바시, 러시아 예카쩌린부르크시, 우즈베키스탄 나간만시, 터키 가지

안데시, 베트남 탕화성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추진해왔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2

## 여름 피서는 물놀이 천국, 성남에서!

탄천 · 공원 · 놀이터 물놀이장  
20곳 6월 20일 개장



정자동 탄천물놀이장

먼 해수욕장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물놀이 하며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 내 탄천과 공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20곳이 오는 6월 20일 일제히 문을 연다. 탄천 둔치에 조성된 탄천 물놀이장은 모두 5곳으로 휴게 그늘쉼터, 샤워시설,

간이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물놀이장은 8월 30일까지 오전 10시~오후 7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소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휴장한다(능골공원 물놀이장은 일요일 휴장).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소독과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시 오고 싶은 물놀이장으로 거듭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물놀이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6,371명 연인원 35만5,914명이 다녀가는 등 도심 속 물놀이 명소로 사랑을 받았다. 이번 여름 피서는 물놀이 천국 성남으로 가보자.

### 성남시 물놀이장 현황

물놀이장명	위치	문의
태평 물놀이장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 탄천 둔치	하천관리과 031-729-4345
야탑물놀이장	야탑동 만나교회 앞 탄천 둔치	
맴돌공원	분당구청 뒤 탄천 둔치	
정자물놀이장	신기초등학교 정자역 앞 탄천 둔치	
금곡물놀이장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탄천 둔치	
희망대공원	수정구 신흥동 2440번지	공원과 031-729-4274
단대공원	수정구 산성동 509, 510번지 일원	
영장공원	수정구 태평4동 산 47-1 일원	
은행공원	중원구 은행1동 산 62-1 일원	
대원공원	중원구 중앙동 1436번지	
능골공원	분당구 정자2동 103번지 일원	

물놀이장명	위치	문의
산성동(은빛나래) 놀이터	수정구 산성동 2115번지	수정구청 031-729-5454
수진2동(푸른꿈) 놀이터	수정구 수진2동 3030번지	
양짓말 놀이터	수정구 양지동 62번지	
양지동 놀이터	수정구 양지동 1017-1번지	
신흥2동(정다움) 놀이터	수정구 신흥2동 37번지	
상대원2동(꿈마을) 놀이터	중원구 상대원2동 3393번지	중원구청 031-729-6455
성남동(나들이) 놀이터	중원구 성남동 2566번지	
금광1동(푸른꿈) 놀이터	중원구 금광1동 634번지	
금광2동(자혜) 놀이터	중원구 금광2동 2687번지	

하천관리과 시설물관리팀 031-729-4302



성남은 합니다!

## 아파트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56억 원 지원

낡은 급수관 교체, 놀이터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주거환경 개선 도와

성남시는 66개 아파트 단지에 5월부터 단계적으로 56억 원의 공동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노후 급수관 교체, 놀이터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돋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7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설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규모는 성남시가 보수 대상 시설물의 실시 설계를 직접 시행해 애초 소요 예상 비용보다 20억원 절감했다. 덩달아 공동주택 입주자는 장기수선충 당금 부담을 덜게 됐다. 낡은 급수관은 우선 지원 대상이 돼 분



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선경아파트 등 13개 단지가 3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교체 공사를 한다. 놀이터 보수 공사 대상 아파트는 수정구 단대 진로아파트 등 19개 단지다.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18억원은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도로나 옥외 주차장 · 주민 운동시설 · 경로당 · 공부방 · 공동화장실 · 가로등 보수, 재해위험 수목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한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2

[성남형교육]

## 학습준비물센터 초등학교 37곳서 운영

부모·교사학습준비 부담 경감, 학용품 낭비방지 효과



“제가 용인·평촌에 사는 친구들이 계 초등학교 1학년 보조교사 지원, 학부모아카데미, 생존수영, 찾아가는 성남FC 축구클리닉 등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얘기처럼 매우 부러워하면서 들어요.” 이제 학습준비물센터까지 학교에 생기니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이라고 여수초교 학부모 최옥희(45·여수동) 씨는 자랑한다.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여수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비롯한 성남시장, 권혁수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준비물센터 개소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근 학교의 학부모까지 200여 명이 참여해 학습준비물센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성남시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하나로 3억7천만원을 들여 35곳 초등학교에 37개소의 학습준비물센터를 설치,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각 학습준비물센터는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필요한 색종이, 도화지, 사인펜, 주사위 등 3,680개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학생당 3만원 상당(교육청 지원)의 1년치 학습 준비물을 마련했다.

시는 68개 초등학교(4만8,679명) 가운데 빈 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각 1천만 원의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를 지원했다.

학생들이 수업 때 원활하게 준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2명



성남여수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에서 일하는 학부모

씩 모두 50명의 관리 인력도 채용했다. 모두 해당 학교 학부모다.

학급에서 신청한 학습준비물을 챙겨 보내고, 물품 대여와 반납 확인, 학습준비물 검수, 정리 등의 일을 맡는다. 자료 복사나 코팅, 간단한 학습 자료는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학습준비물센터는 각 교실에 분산 배치하던 학습준비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분실이나 중복 구매 등의 낭비를 막고, 준비물에 대한 부모의 경제·심리·시간 부담 경감에 학부모 일자리 창출, 선생님의 학습 준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부모의 능력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5가지 긍정 효과를 낸다.

김지연(여수초 6) 학생은 “준비물이 줄어서 좋고, 깜빡하고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와도 학습준비물센터에서 봇, 각도기, 자, 단소 등을 빌려 쓸 수 있으니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성남시장은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열어나가고 있다”면서 “학습준비물 센터는 204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의 일부”라고 말했다.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성남형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성남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31-729-3042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현장스케치]

##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그곳에 가면…

비가 많이 올 땐 빗물 저장, 평상시에는 생태체험장



“노란 꽃이 피어있는 이 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줄기를 꺾으면 노란 물이 나와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노란 액을 보고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노랗게 나오는 물이 아기의 뚱 색깔과 같다고 해서 얘기 똥풀이라고 해요.” 저류지에서 생태 수업이 한창이다.

판교 봇들마을 9단지 옆에는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을 막는 시설인 저류지가 있다. 이 솟내저류지는 운중천을 따라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면적은 6,900m<sup>2</sup>이며 4만5천m<sup>2</sup>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저류지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게임을



취학 전 아동 대상 생태체험학습

통해 저류지에 대해 알아 보고 동식물을 관찰하는 생태체험장으로 이용된다. 공간이 넓고 저류조에 물이 흐르고 있어 각종 수생식물과 물고기, 잠자리 수채 등이 사는 저류지는 아이들이 생태체험을 하고 게임을 하기에 좋은 장소다.

생태체험은 저류지 인근 초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어린이집 5

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까지, 1회 20~40명 내외로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환경도시 에코성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에코성남 [www.ecosn.or.kr](http://www.ecosn.or.kr) 031-729-3152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 ‘취업 열기’ 함께 높여요

6월 19일 시청 광장… 현대백화점과 함께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성남시는 6월 19일(금) 성남시청 광장에서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협력해 대규모로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8월 개점을 앞둔 현대백화점 판교점(분당구 판교역로 180)이 대규모 근무인력을 채용한다. 판내 우수기업 40개 업체 등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판매직, 미화, 시설관리, 안내, 주차요원 등 60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새 꿈을 찾아 일자리를 잡(Job)는 이번 행사에서는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과 캐리커처 행사, 취업 타로카드, 면접 메이크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성남시청 성남일자리센터(☎031-729-4415~4420)나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구직 등록 후 사전 면접 지원을 하면 된다. 성남일자리센터는 사전에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박람회 행사 문자안내 발송, SNS를 통한 안내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구·동 주민센터에 현장 일자리상담사 38명을 배치하는 한편 퇴직자 은퇴설계를 위한 비전-업 프로그램, 취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성남일자리센터팀 031-729-4412



## 일자리를 JOB 아라!

### 국비 지원 무료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

기초학습튜터 양성과정(6.29~8.28 월~금 14:00~18:00)은 6월 16일(화)까지, 보육행정사무원 양성과정(7.7~9.21 월~금 14:00~18:00)은 6월 23일(화)까지, 컨텍센터상담원 양성과정(7.27~10.7 월~금 14:00~18:00, 10만 원)은 7월 14일(화)까지, 오픈마켓파워셀러 양성과정(7.27~10.16 월~금 14:00~18:00, 10만 원)은 7월 14일(화)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자로 교육 수료 후 취업의사가 확고한 여성이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노노케어 활동팀은 독거어르신 댁을 방문해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 거주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경로당으로 파견돼 한글과 엑셀 등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시니어IT강사파견 활동팀은 컴퓨터 능력을 보유한 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면 된다. 활동비는 월 20만 원. 6월 30일(화)까지 증명사진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니어클럽 031-735-6333

### 산보돌보미 교육생 모집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산보돌보미 신규 교육을 6월 9~12일 진행한다. 내용은 산모관리와 신생아관리, 가사·일상 지원 등이다. 6월 1~6일 전화상담 후 등본, 보건증, B형간염 검사증, 증명사진 각 1부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YWCA 031-701-2502

### 바리스타 자격증반 ‘한솔바리스타교실’

KIBE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이 7월 2일(화)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 4~6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 2층 바리스타교실에서 열린다. 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및 차상위(소득 180% 이하) 계층이며 교육비와 재료비는 무료다. 5~6월 중 모집한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031-8022-1133

## 청년층 일자리 창출 위한 대안적 일터

플레이마켓 ‘재미’… 격주 토요일 분당구청 앞서 열려

성남시가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플레이 마켓 ‘재미’를 5월 9일~10월 17일 격주 토요일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플레이 마켓 ‘재미’는 솜씨·놀이·예술재미로 구성돼 창작품, 공연, 소셜 모임 등 유무형의 창작물이 거래된다. 50여 팀의 셀러와 재미지기(행사 운영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행사로 기존의 플레이 마켓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캘리그라피, 압화 글래스, 한지 인형 등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버스킹 공연과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 공연도 마련한다. 이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숨은 플레이마켓 ‘재미’는 창작물을 거래하고 경험하는 장터의 개념을 넘어 젊은 문화의 거리이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창작자의 자립과 활동을 도와 창업과 창작 경험의 워크숍, 인큐베이팅 공간이 제공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6월 13일, 27일 10:00~18:00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31-729-2853

## 중증장애인 취업, 꿈이 아닌 현실로

장애인종합복지관 2,900명 구직자 등록 관리



성남시는 도서관, 주차관리 등 공공일자리 155개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2,900여 명의 구직 장애인을 등록

관리, 최근 5년간 684명, 연평균 153명의 장애인 일자리 취업을 성공시키고 있다. 그 중 취업 사각지대인 중증장애인이 79%에 달하며, 지적·자폐성 장애인도 51%나 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인 양질의 고용이 95% 이상이며, 3개월 이상 취업유지율도 71%나 되는 등 장애인의 직장생활과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취업지원 사업은 직무적합성을 고려해 취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직무조정, 근무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장기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720-2850



까치군단  
성남FC

## ‘두목 까치’ 김두현의 색다른 리더십으로 5위에 ‘우뚝’



시민구단 최초 아시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성남FC의 주축은 팀의 주장 김두현이다. 성남FC의 상징이 까치라 그는 이번 시즌 ‘두목 까치’라 불리며 팀을 경기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리그 정상급 경기력을 물론 두목까치라는 별명에 걸맞게 리더십 또한 뛰어나 이번 시즌 초반 타이트한 일정에 체력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마주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성남은 4월 15일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 후 감학범 감독은 침묵을 유지하며 리커룸을 떠났고 김두현은 선수들을 불러 모았다.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였던 점과 대조적으로 힘이 실린 목소리로 선수들을 다그쳤다.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그래도 프로잖아, 이겨내야지!” 정신력과 집중력 저하를 보이던 선수단에게 두목까치의 일침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 후 성남 선수단 사이에

서는 “힘들어? 이겨내야지!”가 유행어가 됐다.

지난 4월 29일 열렸던 부산교통공사와 만났던 FA컵 32강전에서도 그의 맏형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객관적 한 수 아래인 부산교통공사를 만나 김두현과 주축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려던 김학범 감독의 배려에 그는 솔선수범을 보이며 직접 짐을 꾸려 선수단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성남의 주포 황의조 역시 “(김)두현이 형이 가는데 내가 안 갈 수 없다”며 동행했고 이 두 명의 발에서 경기를 결정짓는 결승골이 터졌다.

김두현의 리더십은 경기장 밖에서도 선수단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남FC의 한 관계자는 “주장으로서 모든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항상 경기 전에 선수들과 토론하며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시민구단 최초 FA컵 우승과 함께 올 시즌 초반 K리그클래식 8경기 무패행진, AFC 챔피언스리그 16강행 등 최초의 역사를 써나가는 성남FC 스토리의 중심에는 김두현의 리더십이 있다.

## 100만 성남시민이 응원합니다

### • 성남FC K리그 순위 ‘5위’

승점 15 (3승 : 6무 : 2패) ※ 5월 18일 현재

### • K리그 순위

- 1위 전북(승점 28)  
- 3위 제주(승점 15)



성남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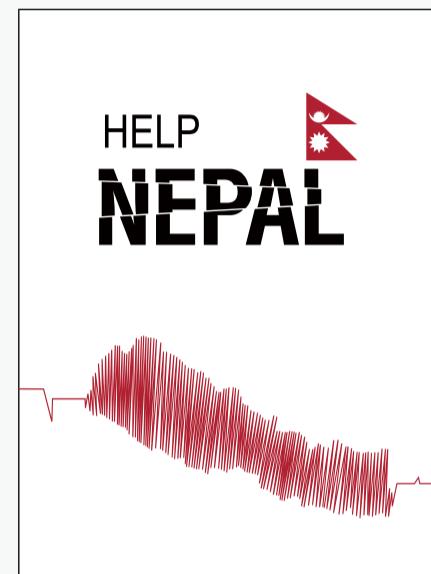
### 성남FC 5·6월 경기 일정

날짜	시간	팀	장소	구분
5월 27일(수)	20:00	광저우 헉다 vs 성남	중국 광저우 텐허경기장	AFC 챔피언스리그
6월 3일(수)	20:00	제주 vs 성남	제주 월드컵경기장	
6월 7일(일)	17:00	성남 vs 포항	탄천종합운동장	
6월 17일(수)	19:00	전남 vs 성남	광양 축구전용경기장	
6월 20일(토)	19:00	성남 vs 광주	탄천종합운동장	
6월 27일(토)	16:00	울산 vs 성남	울산 월드컵경기장	

성남FC 031-709-4133 www.seongnamfc.com

성남FC, 26일 홈경기 수익금 네팔 구호 지원

## 국내 프로구단 최초 네팔 대지진 구호 위해 기부



아시아의 대표 시민구단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성남FC가 4월 26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수익금의 일부를 대지진으로 막심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부한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올 시즌 시민구단 최초 출전한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에 진출하는 등 아시아 대표 시민구단의 토대를 쌓아가는 성남FC는 이번 참사에 대한 구호지원을 통해 네팔 국민들의 슬픔을 함께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문화유적을 포함한 국가 인프라가 파괴돼 전 세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구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곽선우 성남FC 대표이사는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은 네팔 국민들의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이 구호활동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시민구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구호지원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 어린이집도 ‘공평 보육’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가 부모의 보육비 부담 ‘제로화’에 나섰다.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맞아 성남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성남시만 유일하게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에 거주하는 부모는 도 지원금 3만 원에 성남시 지원금 최대 3만6천원을 지원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달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5천원 부담의 배경도 알고 보니 갑작스런 보육료 인상 때문이었다. 당초 성남시는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부모의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시는 68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 9,677명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12억9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보육료가 월 5천원 인상되면서 학부모의 부담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중앙동 중앙어린이집

시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을 2차 추경에 반영해 올 하반기 중 무상 보육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모 부담 없는 보육은 공평한 보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성남의 정

책방향을 보여준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친환경 의무급식 등과 함께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729-2932**

## 아이사랑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확대

생후 3개월 안 된 갓난아이 연 20회, 80시간 무료 보육

긴급히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돼 무료로 보육하는 ‘성남시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확대됐다. 성남시는 생후 3개월이 안 된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한해 ‘아이사랑 공공 베

이비시터’ 이용 횟수와 시간을 5월 11일부터 연 20회, 80시간으로 두 배 늘렸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기존의 연 10회, 40시간 서비스 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는 시간제 보육을 하는 민간이나 공공시설이 없어 월령별 아이 돌봄 공백을 없애려고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이용시간을 확대했다.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는 성남시 4곳 국공립어린이집(금광2동제2·은행·신흥제3·산성제2 어린이집)에 각 1명씩 배치돼 담당 지역의 서비스를 전담한다. 보육 경험이 풍부한 30~50대 베�테랑 선생님들로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달래기, 놀아주기 등 서비스를 전개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다.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키우는 수정·중원 지역 가정은 일시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정 어린이집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분당지역 가정은 수내 아이사랑놀이터의 시간제 보육(☎031-716-1675)을 활용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우선 서비스 대상이다.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729-2933**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 + 자녀를 성장시키는 아빠효과

성남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진행된다. 6월 13일(토 10:00~14:00) 이론편은 ‘아빠 양육, 선택 아닌 필수! 양보다 질로 승부하자!', 6월 20일(토 10:00~13:00) 실천편은 ‘홀랜드를 이용한 진로코칭 및 우리아이 특징 알기’이며 5월 18일(월)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가족교육팀 031-755-9327(내선 2번)**

#### + 삼세대 공감프로젝트 ‘통통삼대(三代), 행복충전’

세대공감을 위한 관계증진 통합프로그램이 센터 시청각실과 강당,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열린다. 6월 30일(화)과 7월 2일(목)은 지혜로운 조부모 교육, 7월 4일(토)은 음악으로 친해지는 조부모-손자녀, 7월 11일(토)은 음악으로 하나되는 삼세대 우리 가족, 7월 18일(토)은 통통삼대 행복캠프를 진행한다. 성남시의 초등학생 손자녀를 둔 삼대가족은 6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신청** 후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 1만원.

**가족상담팀 · 가족교육문화팀 031-755-9327(내선 1번, 3번)**

#### + 자아성장: 내가 만드는 나

색채치료를 활용한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6월 11일, 18일, 25일(목) 오후 7~9시 센터 시청각실에서 진행한다. 시 거주 20세 이상 직장인은 5월 13일(수)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가족상담팀 031-755-9327(내선 1번)**

#### + 버블버블! 우리가족 신나는 버블매직쇼

오는 6월 17일(수) 오후 7시 센터 4층 대강당에서 6세 이상 자녀를 둔 성남시 모-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6월 1일(월)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

**가족문화팀 031-755-9327(내선 3번)**

\*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www.family.go.kr](http://www.family.go.kr)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신청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 + 우리 아이랑 어떻게 놀지?

##### ‘행복한 조부모 되기’

오는 6월 11일, 18일, 25일(목 10:30~12:00)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사랑 우리 아이’, ‘행복한 우리집’ 교육을 시리즈로 운영한다. 관내 만5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예비 조부모는 5월 20일(수)부터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www.sneducare.or.kr/echild](http://www.sneducare.or.kr/echild))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육아지원팀 031-721-1640(내선 7번)**

#### + 실종유괴예방인형극

##### ‘꼭꼭이와 함께하는 나눔 Day’

성남시민 중 만 2~5세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6월 26일(금) 오전 11시 양지·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에서 무료로 공연한다. 온라인([www.sneducare.or.kr/echild](http://www.sneducare.or.kr/echild)) 접수한다.

**육아지원팀 031-721-1640(내선 7번)**

## 성남시, 한미 우호 증진 강화

K-16 미군 부대 축제서 시정 알리고 한국 위상 드높여



성남시는 5월 15일 수정구 신촌동 K-16 비행장(서울공항) 내 미군 부대에서 열린 '2015 스프링 페스티벌(Spring Festival)'에 참여해 시정을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K-16 스프링 페스티벌'은 서울공항에 근무하는 미군 500여 명의 사기진작을 위해 열리는 행사다. 자체 준비한 문화공연이나 체육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날 인근의 주한미군과 가족까지 1,500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K-16 항공대 대장의 요청으로 이날 축제에 참여해 비행장 안에 홍보관을 차렸다.

미군들에게 성남 40주년 기념 화보집과 관광지도, 관광책자인 성남마실 등을 나눠줘 홍보하고 제기

차기, 투호 체험장을 마련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홍보관 앞에는 성남FC의 까비·까오 마스코트를 내세워 친근함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미군들의 밴드공연, 난타, 태권도 시범과 림보게임, 미꾸라지 잡기, 풋살, 원반던지기 등의 행사도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민간인 부대장이자 행정 총책임자인 세실 벨(Cecil C. Bell) 씨는 "성남시는 K-16 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들의 아주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스프링 페스티벌을 빛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보관 홍보기획팀** 031-729-2073

**박정호 기자** jungho\_park@outlook.com

## ‘모국어 잊지 마세요’

해외 한국인 거주마을에 도서 10,430권 보내



성남시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 한국인 거주 마을에 1만430권의 도서를 보낸다. 시는 5월 12일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성남시장과 신동석 월드문화나눔운동본부대표, 도서관 관

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한국인 거주마을 도서 전달식'을 했다.

전달하는 도서는 성남지역 10개 공공도서관이 수집한 여가 레저용 잡지 5,658부와 시민에게 기증 받은 한국전래동화, 고전, 그림책 등 4,772권이다.

이날 (사)월드문화나눔운동본부가 경남 창원시 진해항으로 싣고 가 해군 군함 해외 출항 때 선적해 세계 각국에 보낸다.

해외 한국인에게 한국문화와 모국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 한국인으로서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아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지원과 장서개발팀** 031-729-8833

## 알아두면 좋아요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6월 16~30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정구** 031-729-5150-3

**중원구** 031-729-6150-3, **분당구** 031-729-7150-5

### 성남시민 등산교실 운영

성남시는 산악사고 예방과 올바른 등산문화 보급을 위해 일반 시민 대상 '등산교실'을 연다. 기수별 30명씩 ▲ 1기 6~7월 ▲ 2기 8~9월 ▲ 3기 10~11월 등 2개월 단위 교육과정으로 평일반, 주말반, 단체반을 운영한다. 등산 전문 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등산 입문 과정, 등산 장비·지형, 응급처치, 보행법, 야영생활, 해외 고산, 독도법, 안전산행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이론 교육은 매주 수요일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남시등산교육센터에서, 산행 실습교육은 매주 금요일 남한산성, 청계산 등에서 이뤄진다. 참가비는 없으며 개인 등산용품, 실습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 1기는 5월 29일(금)까지 신청서를 시청 녹지과 팩스(729-4289) 또는 담당자 이메일(rowley@korea.kr)로 보내면 된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

### 2015년 제2차 성남시 학습동아리 지원

성남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심화학습을 위한 강사비, 교재구입비, 공동재료비 등 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7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성남시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돼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자발적 모임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하는 성인 학습동아리가 대상이다. 6월 1~5일 신청서(홈페이지 [www.seongnam.go.kr](http://www.seongnam.go.kr) 공지사항) 작성 후 평생학습원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031-729-8823-4

### 분당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분당구는 6월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24개교) 3학년(1997.6~1998.5월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학업 등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부담을 덜어 준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민원팀** 031-729-7082

### 5월 1일부터 정자동 → 정자동·정자동

정자동 주민센터 031-729-7690	분당구 황새울로 18번길 14 (정자동 147번지)	현재의 동 주민센터
정자동 주민센터 031-729-8260	분당구 정자동로 145 (정자동 163번지)	임시청사 (구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한 걸음,

# 마을에서 길을 묻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과거 유행했던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참여, 이웃과의 협동, 그리고 소통, 내가 가진 끼의 발산으로 이뤄내는 만족… 이런 것들의 어우러짐이야말로 잘 살 수 있는 근본이자 원천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윤현자 기자 yoonhh1107@hanmail.net

## 공동체적 시민운동… 새로운 발상, 활기찬 소통

지난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관의 행정절차로부터 시작했고, 행정 업무에 기대왔다면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 스스로 가꿔야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마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발상을 하고 기획을 하는 등 주민 스스로 주도하거나 민·관 협력으로 이뤄내는 변화가 일고 있다. 행복할 권리를 스스로 찾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인 게 분명하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웃 간의 무관심,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와 이웃, 세대와 세대, 마을과 마을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다. 주민 스스로의 움직임은 도시재생사업, 문화마을 조성, 학습형 마을공동체 사업, 범죄예방 프로젝트, 마을 기업 등 새로운 발상, 활기찬 소통으로 마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서 6개 유형 12개 사업 선정

2015년 지역공동체 ‘성남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6개 유형,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사업은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대동 마을센터 등 7곳 공동체와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살기 좋은 성남’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펼쳐낼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행복마을팀’을 설치, 마을리더 양성, 지역공동체 사업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7개), 기관 및 단체(15개), 동아리(12개), 2013·2014년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역공동체(24개), 마을리더(103명)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231개의 소통 공간이 있다.

“정답이나 공식은 없다”며 “누구든 마을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모든 결정은 주민이 해야 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초석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한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웃과 정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을의 주인인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푸름에 녹음이 더해가는 6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선 과연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나도 같이 여름날의 푸르름처럼 행복한 마을에 물들어 보는 건 어떨까.



## 공모 선정 사업

유형	단체명	사업명
지역교육	될성 푸른나무 도서관	금곡동의 동서남북 마을신문 발행
	신흥동 르네상스	“흥”“흥”“흥”이 있는 신흥동 마을만들기 신흥동 마을동아리~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정자2동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네 시끌벅적 주말놀이체험 노리터
	꿈너비 작은 도서관	봇들6 꿈너비 마을신문



유형	단체명	사업명	공동체	시기	프로그램	문의
지역복지	은근 행복한 동네 「행복동 네트워크」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	봇들마을 꿈너비 공동체	5~7월	홈패션수업	010-8603-0828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아주 특별한 마을'			손으로꼼지락	
	서현1동 행복마을만들기 마을회의	마을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작은 음악회			그린에코수업	
지역안전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산성동 블랙박스영상 나눔사업 'safe-산성 마을 만들기'	금곡동 행복마을센터	5~11월	실버풀수업 마을신문마을지도그리기)	010-9820-8282
문화역사	운중천 문화거리조성위원회	운중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학습재능나눔	
생활정비	태평4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마을 만들기 골목길 Re-design사업			유아오감미술	
	판교25동 마을협의체	판교25동 벽화프로젝트		5~10월	금곡동 꽃이야기 행사 게릴라가든 '동산정원'	
환경생태	금곡동 행복마을센터	금곡동 함께 만드는 꽃이야기 사업			카트의 산책로 텃밭상자 - 내 이름 달기	
<b>마을공동체 행사</b>					텃밭상자 - 텃밭놀이 항상 활동합니다!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5~6월	줌마콜라의 고백	070-4229-0084	6월	벼룩시장	031-704-7563
		행복창작			쌈쌈day	
	5~7월	우리동네 시끌벅적 놀이터		6월	마을가족캠핑 작은음악회	
청솔종합 사회복지관	5월~	장애인 재생비누 사업단	031-714-6333	5월~	정리/수납 자격과정(주간)	031-732-9584 031-732-9585
		휠체어 봉사단			정리/수납 자격과정(야간)	
		마을라디오 '청솔 FM 데이트'		5~7월	홈바리스타 기초 과정(야간)	
	5~11월	생태마을 'eco village'			신나는 기타교실	
	5~12월	청솔마을 6단지 지역주민 봉사단 함께 크는 마을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및 원화전시	
행복동네트워크	6월	마을공동체 교육	010-8932-4528	6월	논골 가족 생태 기행 논골 어린이 역사기행	031-732-9586 031-732-9589
	5~6월	행복동네트워크			논골달장	
	6월	작은놀이대회		6월	인도정통요가	
운중천문화거리 조성위원회	6월	운중천 문화예술한마당	010-5436-7346		사랑을 나누는 도시락	031-732-7004
될성푸른나무 도서관	5월~	청소년 난타	031-719-5006	5월~	마을신문 만들기	
		English, Talk, Talk			시장 책바달 서비스	
		성인 꽃꽂이		6~7월	아빠와 함께 떠나요	
	5~11월	POP과정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뜨개질	031-752-0225
		금곡통 소식 마을신문제작			섬마을 독서디베이트	
신흥동르네상스	5월~	"흥" "흥" "흥"이 있는 신흥동 동아리 회원 모집 [마을愛에 빠지다]	010-8943-4172 <a href="mailto:ilifeseed@naver.com">ilifeseed@naver.com</a>	5월~	악동뮤지션 드럼	
		품앗이 "나비행복" 벼룩시장			내적성장과 자기치유의 시간 "힐링타로"	
		재능품앗이 "공동육아나눔"		6월	섬말생태숲놀이터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6월	주민간담회			천연소이왁스 아로마향초 만들기	
		태평마을 작은연주회	031-729-5730	6월~	악동뮤지션 드럼	
판교25동 마을협의체	6월	판교25동 벽화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031-729-9654		내적성장과 자기치유의 시간 "힐링타로"	031-752-0225
		판교25동 벽화프로젝트- 벽화 제작	6월	섬말생태숲놀이터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31-729-2315						





6.25 참전  
유공자회  
성남시지회

## 찔레꽃 피는 유월엔, 유월엔…



“그때가 스무 살이었지요.”, “나는 스물 한 살이었어요.”, “만 18세에 군대를 갔으니 모두들 그 나이지요.” 쫄레꽃보다 뾰얀 나이다. 온 산하가 붉게 물들었다는 한국전쟁(1950.6.25)이 발발하고 휴정협정(1953.7.27)이 된 지 올해로 65년째다.

전쟁은 끝났으나 아직도 그날이 어

제의 일처럼 생생한 분들이 있으니 2009년 3월 7일 설립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성남시지회’ 어르신들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회원들의 헌신노고를 위로하

며 국가관을 고취시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는 장근식(85·수내동) 회장은 “전쟁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참담한 민족의 비극이며 또 다시 국토가 폐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원도 금성천 돌고지 작전에 참전한 장근식 회장님을 비롯해 백마고지전투의 권정섭(83·양지동) 어르신, 광주군(현 성남시)에서 전투한 문영준(86·성남동) 어르신 등 당시 전국 각지의 전투에 참전한 분들이다. 그뿐일까. 전투병의 밥을 짓고 부상을 치료하는 등 뒤에서 지원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성남에 거주한다. 그분들 중에는 104세 고령의 유공자도 계신다.

현재 성남시엔 6.25참전유공자는 2,291명이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성남시지회’에 등록된 회원은 450여 명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생존율이 줄어들어 안타까운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우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51년 4월, 포로가 돼 29개월간 있다가 휴전협정 이후 송환됐다는 문영준 어르신은 “한국전쟁은 전국적인 위기였다. 그 위기와 참담함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며 “역사를 바로 아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일이다”라고 한다.

한국전쟁의 산 증인인 어르신들은

후손들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매년 6월 25일, 호국 영령을 위한 현충탑 참배와 함께 야탑역 광장과 중앙공원에서 전쟁 관련 사진전을 열고 참전 때 먹었던 보리주먹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빼아픈 전쟁의 아픔과 역사의식을 알리고 있다.

국토와 민족을 수호한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 수많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현재 우리가 있다. 나라를 지킨 전국의 참전용사들은 지난 2013년 11월 정부로부터 ‘호국영웅장’을 수여받았다.

매년 찔레꽃이 피는 유월이 오면 “함께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전우들, 조국을 위해 거룩하게 산화한 전우들 생각이 난다”는 참전유공자들. “한치 앞도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바로 옆의 전우가 전부였던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해야만 했던 그때, 그래서 저절로 전우애와 조국애가 생겨났던 전우들이 몹시 그립다”는 참전유공자들이다.

어르신들은 ‘6.25 참전 유공자회’에 미등록된 전우들이 모두 등록을 해서 그리운 얼굴도 보고 그 당시의 이야기도 나누며 여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다.

조여일 기자 dudlfdk@hanmail.net

## 야쿠르트 한 병에 건강한 정 듬뿍 담았어요

은행2동  
홀몸어르신  
야쿠르트  
배달



은행2동(동장 남윤수)은 관내 무의탁, 홀몸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방문해 안부도 여쭙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독사,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야쿠르트를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살펴 필요 시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복지사

업이다. 필요한 비용은 은행주공아파트 이승곤 입주자 대표가 지원한다. 외로워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서동순(여·76) 어르신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거동이 불편했는데 은행2동 주민센터 주선으로 무료 수술도 받았다”며 “또 이렇게 쟁여주니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

했던 마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후원을 시작한 이승곤 씨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어요”라며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네는 것만큼 더 큰 효는 없다”고 말했다. 유기견 후원을 비롯한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야쿠르트 배달원 유옥선 씨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직업을 떠나 봉사한

다는 마음으로 야쿠르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정하고 밝은 모습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시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라고 한다.

홀몸어르신들의 가장 무서운 적인 외로움의 무게를 건강한 정으로 나누고 공유하는 따뜻한 정서적 봉사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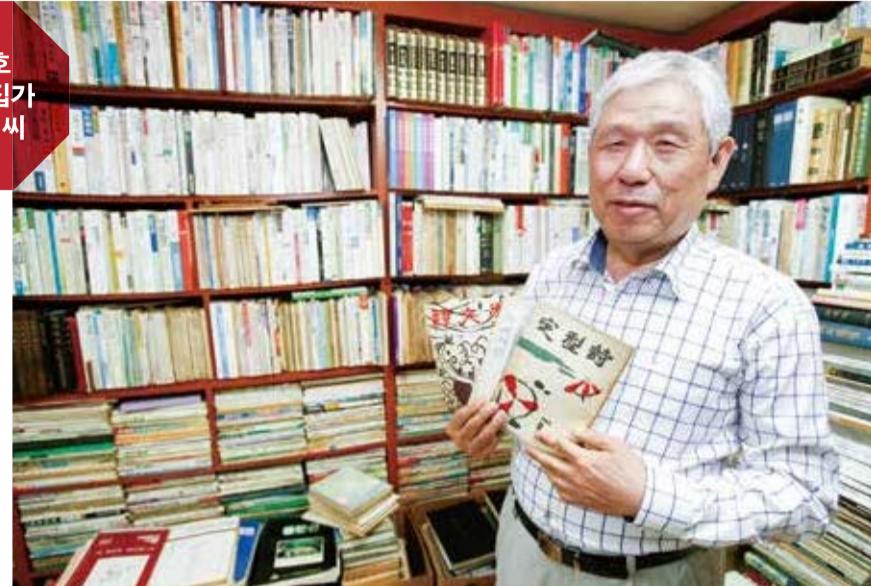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 “잡지는 꽃과 같다”

야생초 같은 잡지,  
열흘 피는 꽃!  
100일 피는 꽃!



창간호  
잡지수집가  
김효영 씨



그래서 “잡지는 꽃과 같다”는 김효영(70·수진동) 씨는 창간호만을 고집하는 잡지 수집가다. 농업경영학을 전공한 선생은 농사를 짓다가 시작한 성남시 공무원 생활 30년, 조상 때부터 성남에 살아온 70년지기 성남토박이다.

1964년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 시대 젊은이들처럼 두툼한 《사상계》 잡지 한 권쯤 옆에 끼고 다녔다. 그해 신동아 복간호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420여 권의 신동아를 모으게 됐다. 1913년 발행된 100년이 넘은 《경학원》을 비롯해 그동안 모은 창간호는 7천 권(종)에 이른다. ‘육군의 거울이 되라’는 축하메시지를 담은 《육군》 창간호가 발행된 지 300호가 넘었는

데 유일하게도 육군 창간호를 가지고 있다.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창간호의 종류는 다양하다. 선생은 성경찬송 300종 외에 상록수 관련 잡지 40여 권을 보유하고 있고, 기독교 100년 사와 관련된 1,800권(외국 150권)은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개하지 않았던 1945년에 창간된 월북 문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 《인민(人民)》, 1946년 발행한 《우리문학》과 남조선노동당 당수였던 박현영(1900~1955)이 ‘송구영신에 대하여’라는 글을 기고한 《적성(赤星)》 등의 잡지는 창간호를 발행한 후 속호를 발행하지 못한 것 같으며, 해방공간에서 발행된 잡지를 보물처

럼 상자에서 꺼내 보였다. 실제로 적성(赤星) 창간호에 찍혀 있는 붉은 도장(불온간행물)을 보여 주며,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선생은 “광복 이후 많은 잡지가 쏟아져 나왔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창간호가 종간호가 된 경우의 잡지를 많이 봤다”며 “광복과 6.25전쟁 사이의 잡지들은 귀하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특히 언론 통폐합으로 《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인기 있던 잡지들이 사라지게 됐다”고 한다. “꽃이 피면 언제 시들지 모르듯 종교, 문화 목적으로 봄이 일 때 나왔다가 사라지는 잡지의 운명이 수집가로서는 아쉽기만 하다”고 했다.

그만큼 잡지가 전하는 그 시대의 메

시지는 여러 측면에서 강한 전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한 번쯤 읽었을 두툼한 《보물섬》, 《학원》 등의 창간호를 보여줬다. 볼수록 심장을 뛰게 하는 오래되고 희귀한 제목의 창간호들이 선생의 반 지하 보관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지난 1993년 성남문화원 주최로 구시청 시민회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다는 선생은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망설이고 있다”며 귀한 ‘창간호’가 공개된다면 관심있는 여러 사람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 요리가 즐거워지는 주방

기분 좋은 정리수납



주방은 여성의 행복을 지배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금전운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해 최대한 편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주방은 좁은 공간이라도 물건의 개수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손이 많이 가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곳이면서 제일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조리도구부터 식재료까지 복잡하게 섞여 금세 지저분해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주방 정리수납 방법을 따라해 보자.

주방은 종류별로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큰 짐이 된다. 주방을 방해하는 잡동사니를 우선 처분하고 싱크대는 물건의 사이즈, 용도, 사용빈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다.

주방용품은 사용빈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서있을 때 손을 뻗어 사용할 수 있는 높이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동선에 맞춰 위치를 잡는다. 같은 종류의 그릇은 앞뒤로 수납해 다양한 종류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배치한다. 접시는 포개지 말고 접시꽃이를 이용해 세로로 꽂아 두면 한 번에 꺼내기가 쉽다. 싱크대 상부장에는 언

더선반을 이용해 선반 사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끼리끼리 수납을 해 한 곳에 배치한다.

개수대 아래에는 싱크 인 선반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공간을 나눠 냅비나 바구니, 볼 등을 수납하고 프라이팬은 가열대 곁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랍에도 칸막이가 있는 트레이를 활용해 각 조리도구 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깔끔하다.

주방은 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

내는 곳이다. 그동안 불편했던 것을 감수하고 익숙해져서 몰랐던 주방을 정리해 보자.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조리시간도 단축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에서의 맛있는 식사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기분 좋은 정리수납(1회 2시간 4주 완성)**

6월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분당종합사회복지관 031-715-1063

# 성남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21개 안건 처리

2015년 5월 12~14일 3일간 열려



성남시의회(의장 박관종)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안별 상임위원회 활동과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날인 12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및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13일 둘째 날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1개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제출의안 21건 중 의원발의가 11건(전체대비 52%)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 성남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의결 내역

안건명	의결내용	의결일자	발의자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5. 14	어지영 의원 등 12명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5. 14	노환인 의원 등 16명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14	이승연, 이재호 의원 등 14명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14	박광순, 김유석 의원 등 19명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부 결	5. 14	어지영 의원 등 9명
5.24조치 해제 및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부 결	5. 14	어지영 의원 등 8명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5. 14	최만식, 김윤정 의원 등 15명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5. 14	정종삼, 강상태 의원 등 16명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	5. 14	성남시장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5. 14	지관근, 최승희 의원 등 12명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5. 14	김유석, 이제영 의원 등 17명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견제시채택	5. 14	성남시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14	성남시장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결보류	5. 14	성남시장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14	노환인, 이제영 의원등 22명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2015년도 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해 4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열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심사했다.

## 시의회 홍보관 조성 사전 설명회 개최



지난 5월 12일(화) 오후 2시 성남시의회 홍보관 조성 관련 사전 설명회가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열린 사전설명회는 9월에 개

관 예정인 의회 홍보관에 대한 공간 디자인과 기획방향 등을 설명한 뒤,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문화복지위원회 창의교육 지원 벤치마킹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4월 30일(목) 시흥행복교  
육지원센터 등 시흥시를 방문, 성남  
형 창의교육 지원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위한 꿈을 꿀 때 한 명의 아이도 낙오  
되지 않고 배움이 즐거운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성남형 창의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  
기로 약속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관리계획 발전방안 토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5월 7일(목) 오후 2시 5층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2020년 성남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안)과 판교  
트램 사전조사 용역 진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와의 활발한 토  
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했다.

## 2015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부의장 김유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	위원장 이재호
간 사 이기인	간 사 박윤희
위 원 강한구	위 원 박종철
위 원 이상호	위 원 이승연
위 원 김해숙	위 원 어지영
위 원 강상태	위 원 이기인
위 원 마선식	
위 원 김영발	
위 원 조정식	
위 원 이승연	
위 원 김운정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기인	위원장 이재호
간 사 강현우	간 사 박윤희
위 원 강한구	위 원 박종철
위 원 이상호	위 원 이승연
위 원 김해숙	위 원 어지영
위 원 강상태	위 원 이기인
위 원 마선식	
위 원 김영발	
위 원 조정식	
위 원 이승연	
위 원 김운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인	위원장 이덕수
간 사 강현우	간 사 조정식
위 원 강한구	위 원 김유석
위 원 이상호	위 원 최만식
위 원 김해숙	위 원 박영애
위 원 강상태	위 원 마선식
위 원 마선식	위 원 김 용
위 원 김영발	위 원 홍현님
위 원 조정식	위 원 김윤정
위 원 이승연	
위 원 김운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 지관근
간 사 노현인	간 사 노현인
위 원 정종삼	위 원 정종삼
위 원 김해숙	위 원 김상태
위 원 강상태	위 원 최승희
위 원 권학용	위 원 이재영
위 원 권학용	위 원 박도진
위 원 안광환	위 원 안광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	위원장 박문석
간 사 김영발	간 사 김영발
위 원 강한구	위 원 윤창근
위 원 이상호	위 원 이상호
위 원 권학용	위 원 권학용
위 원 박호근	위 원 박호근
위 원 박광순	위 원 박광순
위 원 안극수	위 원 안극수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구정완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적으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넓게 본다면 일을 하다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산업재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Q: 산업재해는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A: 건강상 문제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근로손실에 따른 임금보전(휴업급여), 치료에 대한 지원(요양·간병 급여) 등이 있으며 근로손실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재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 Q: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A: 요양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는 피자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A: 관련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종업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종업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추징이 있습니다.

### Q: 자영업자인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보상이 되나요?

A: 피고용인과는 다르게,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의거해 보상이 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일을 하다 잘못했는데,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A: 산재보험의 대원칙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

말은, 사고나 질병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이건 간에,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는 동일하게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명확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Q: 일을 하다 쓰러졌는데, 산재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A: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은 진단명에 의거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 이뤄집니다. 진단이 정확한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 또는 유관 전문가와의 상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www.gdwhc.or.kr](http://www.gdwhc.or.kr) 031-739-9301



###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상담을 하며 요양과 보상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건강교실

### 통통 튀는 관절 강화 운동교실

- 일시: 매주 월·목요일 09:00~11:00
- 대상: 중원구 거주 60세 이상, 관절염 유증상자 25명(기수별)
- 접수: 6.2(화)까지 선착순 전화·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주 2회·3주 과정  
(1기 6.8~6.25, 2기 6.29~7.16, 3기 7.20~8.6)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698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 고위험군(만성간질환, 알코올중독 등 면역저하자)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않아야 함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기
-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을 소독 후 사용

### 공수병 예방 수칙

-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야생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동물에게 물린 경우에는 수압이 강한 물과 비누로 상처부위를 세척·소독한 후, 보건소나 병원 안내에 따라 면역요법 시행(백신 및 인면역글로불린 접종 등)
- 가축이나 동물을 사육할 경우
  - 광견병 예방 접종 필수
  -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수정구 729-3863, 중원구 729-3922, 분당구 729-3982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 참여자 모집

중원구보건소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치료기간: 4~11월
- 모집인원: 20명, 원인불명의 난임자로 여성 연령 44세 이하 성남시 주민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02

### 2015 환경의날!

#### 가족, 친구들과 함께~ 환경체험 놀이

제20회 환경의 날을 즈음해 다채로운 환경 체험 행사 마련

• 일시: 6.13(토) 14:00 ※기념식은 13:30

• 장소: 시청 1층 광장 너른못 및 누리홀

• 내용: 친환경 운전왕 선발, 환경 체험부스 운영

환경정책과 환경녹색기획팀 031-729-3141~2

### 2015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전왕 선발대회

• 일시: 6.13(토) 09:00~15:20

• 접수: 5.26(화)~6.1(월) 18:00

이메일(kocan21@korea.kr)

※ 예선대회 6.11(목) 14:00부터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

### 여름철! '오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세요

• 과격한 야외운동 등 실외활동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특히 주의

• 차량정차 시 공회전 삼가

오존경보발령 문자메시지 무료 서비스 신청 <http://air.gg.go.kr>



## 충절이 담긴 남한산성 현절사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남한산성은 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유적이다. 그 안에 현절사라는 사당이 있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계속 항쟁할 것을 주장한 척화파로서 인조의 항복 이후 심양으로 끌려가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 처형당한 삼학사인 오달제, 윤집, 홍익한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삼학사 가운데 가장 연장이었던 홍익한은 당시 52세였고 윤집은 32세, 오달제는 29세였다. 병자호란 당시 조정에는 삼학사 말고도 많은 척화신들이 있었음에도 이 세 사람이 청군에 넘겨지는 희생양으로 낙점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홍타이지의 칭제 건원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들이 누구보다 격렬하게 비난하며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한 신하들을 성토했기 때문이었다.

홍익한의 경우 1636년 2월 '홍타이지가

보낸 자신의 머리를 베어 명나라에 보내든가, 그것이 싫으면 나의 머리를 베라'는 상소를 올렸다. 조선의 골수 척화파까지도 결국 홍타이지의 은덕에 감화됐다면 향후 조선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홍타이지는 처음엔 삼학사를 회유하려 했지만 삼학사는 단호했다. 대명조선국의 신하라고 자신을 표현한 홍익한은 '나는 조선의 신하이자 명의 신하이니 그대들 오랑캐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고 강경한 홍익한의 의지를 확인한 홍타이지는 곧바로 그를 처형했다.

윤집과 오달제에게 마음을 돌리면 처자를 데려와 청에서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홍타이지 회유시도는 실패한다. 노모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끌려온 오달제는 '고통을 참고 이곳까지 온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임금과 노모를 보기 위



해서였다.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면 죽는 것만 못하다. 속히 죽여 달라'고 응수했다. 윤집의 형 윤계는 의병을 일으켰다가 불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는데 청군 앞에서 무릎꿇기를 거부하다 혀가 잘리는 참혹한 죽음을 맞은 인물이었다. 그런 윤계의 동생답게 윤집 또한 '난리 이후 처자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단호함으로 회유를 거절했다.

결국 그들은 심양 서문 밖에서 죽음을 당했고 청인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훗날 뼈들이 쌓여 있는 형장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집안의 종들을 시켜 초훈해 온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삼학사가 보여준 조선의 충절은 청인들

에게도 예사롭지 않았던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했지만 청조는 이후 삼학사를 기리는 사당을 짓고 비석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였다. 청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매년 제사를 지내 주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승자들이 적을 죽이고 그들을 위해 비를 세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예였다.

척화파와 주화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적장의 마음도 움직였던 삼학사가 보여준 충절의 마음은 기억해도 좋을 듯하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엔 남한산성 동문 북쪽 산기슭에 있는 현절사를 찾아가 삼학사와의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 소비자 Q & A

#### 오토캠핑장 해약 시 분쟁해결 기준은?

**Q**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오토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사용 예정일 2주를 앞두고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 했더니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캠핑장 계약 해제 시 해결기준이 궁금합니다.

**A** 오토캠핑장 소비자분쟁은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등과 함께 숙박업 관련 기준을 적용해 해결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일수, 성수기 여부, 주중 또는 주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약 하더라도 주말, 주중 관계없이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이라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2주 전 해약을 요청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성수기는 통상적으로 업체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고,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름은 7월 15일~8월 24일, 겨울은 12월 20일~2월 20일로 적용하면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⑨

## 강한 것보다 강한 것

모두가 컬러일 때 조용한 흑백이 눈에 띈다.  
모두가 해비메탈일 때 잔잔한 재즈가 귀에 들린다.

강한 것보다 강한 것은 다른 것이다.

-〈내 머리 사용법 ver 2.0〉 중에서 -

정철 카피라이터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광고 카피를 써오고 있으며 지금은 '정철카피'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 〈내 머리 사용법〉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이 있다.





## 성남시민의 화합과 번영 기원 오리뜰 농악 시연회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향토 민속놀이 '성남 오리뜰 농악' 시연회가 오는 6월 13 일(토) 오후 2시 은행동 산성공원 놀이마당에서 개최된다.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오리뜰'은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에서 유래됐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오리뜰 농악'은 194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오리뜰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성기를 누리다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로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보존협회의 노력으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통예술복원사업으로 지정받은 성남오리뜰 농악은 복원된 지 9년째가 됐고, 이전의 화려했던 모습으로 여러 민속예술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성남시 대표 행사에 출연하고 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오리뜰 농악은 노동과 놀이가 결합한 두레농악으로, 주



민화합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대동 놀이였다"며 "성남 오리뜰 농악이 다시 꽂목할 만한 성장을 했으며 앞으로 계속 해서 많은 활동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농악단으로 발전시켜 성남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원 031-756-1082

## 이달의 공연·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모란미술대전</b> 일시 5.29(금)~6.5(금) 10:30~19:30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2015.05.29~06.05 미술관 본관	<b>모란미술대전</b> 일시 5.29(금)~6.5(금) 10:30~19:30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1	2	<b>청소년을 위한 클래식</b> 일시 6.3(수) 19:30 장소 양상블시아터 가격 20,000원 연령 만 5세 이상 입장	3	4	
<b>2015 파크콘서트</b> 일시 6.7(일) 19:30 장소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출연 김장훈 가격 무료	<b>MUSIC FESTIVAL</b> 일시 6.9(화) 19:30 장소 콘서트홀 연령 만 8세 이상	8	9	<b>2015 Theatre 이문세 → 금난새의 해설있는 음악회 '사랑의 세레나데'</b> 일시 6.5(금) 20:00, 6.6(토) 18:00 장소 오페라하우스 가격 SR 132,000원 R 121,000원 S 110,000원 연령 만 7세 이상	10	5	
<b>뮤지컬</b> <b>발루뽀와 여행을 떠나요</b> 일시 6.13(토) 14:00, 16:00 ~6.14(일) 11:00, 14:00, 16:00 장소 양상블시아터 연령 24개월 이상	<b>시립교향악단 천원의 행복 릴레이 'kor탁 easy탁'</b> 일시 6.10(수) 19:30 장소 양상블시아터 가격 전석 1천원	14	15	<b>2015 Theatre Lee Moon Saek</b> 일시 6.18(목) 11:00 장소 콘서트홀 가격 전석 25,000원 연령 만 8세 이상	11	12	
<b>대한민국미술대전</b> <b>서예부문</b> 일시 6.20(토)~6.29(월) 10:30~19:30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b>시립교향악단 '사계절의 향기-여름'</b> 일시 6.16(화) 20:00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전석 1만원 지휘 금난새	21	22	<b>마티네콘서트</b> 일시 6.18(목) 11:00 장소 콘서트홀 가격 전석 25,000원 연령 만 8세 이상	13	19	
<b>제34회 대한민국미술대전</b> The 34th Grand Art Institute of Korea 일시 6.20(토)~6.29(월) 10:30~19:30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b>23</b>	23	24	<b>2015 파크콘서트</b> 일시 6.20(토) 19:30 장소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출연 이승환, 리아. 선데이서울 가격 무료	25	26	
<b>28</b>	29	30	<b>27</b>	<b>어르신들을 위한 청춘시네마</b> 일시 매주 수요일 14:00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규브플라자 3F 가격 전석 1천원	28	29	30

\* 양상블시아터,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미디어홀 등은 성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 성남시 젊은 엄마들에게 예쁜 아가 점지해 주세요!

김윤남 분당구 서현로

동네 아줌마들끼리 수다나 떨자며 모인 얼마 전이었다. 서로 간에 덕담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도 오갔고 진지한 삶의 고민과 노후를 생각하는 이야기로 무르익을 즈음 최고참 언니격인 한 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려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말을 꺼냈다.

“나는요, 음… 첫 아기를 낳았을 때요.”

“저는요,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저는 남편 위암 수술이 잘 돼서 퇴원 하던 날 같아요.”

“저도 어렵게 인공수정해서 쌍둥이 낳은 날이요.”

이야기하는 내내 다 같이 숙연했는데 거기에 교집합이 있었다. 몇 가지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나온 말은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그 경외감은 너무나 신비로우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의 순간을 준 것이었다.

나 또한 첫애를 낳았을 때의 감격이 가장 컸노라 말했기 때문에 모든 주부, 모든 엄마들이 다 비슷한 것이다.

한번 머릿속에 영화 화면의 영사기를 집어넣고 서서히 되돌려 보자. 아이를 열 달 동안 몸에 품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10개월간 정성과 공을 들이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인지. 또한 그 긴 10개월의 여정을 거쳐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 주는 순간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느낀 가슴 벅찬 감동이란… 그런 소중한 생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기, 내 생명.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살찌우고 부강하게 하는 원천이다.

올해 결혼하는 선남선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부부, 아이를 더 갖고자 하는 부부 모두에게 천사처럼 예쁜 아기 하나 더 점지해 주실 것을 천지신명께 빌어드리고 싶다.

아기를 원하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금년에 정말 예쁜 아기 꼭 임태하시고 낳으시길….

## 배움의 즐거움 《행복한 청소부》를 읽고

박미숙 분당구 동판교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는 논어 구절이 있다.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중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지친명을 넘기고 난 지금에야 그 뜻을 조금 알 것도 같다. 뒤늦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독일의 거리 청소부가 있다. 2001년 새해 첫날 둘째딸에게 골라준 ‘행복한 청소부(모니카 페트 지음, 안토니 브라티스키 그림, 풀빛 출판)’가 바로 주인공이다.

독일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는 자신의 직업을 매우 사랑한다. 그는 나름 행복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유명 작가와 음악가들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을 매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으면서 정작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청소부는 음악가에 대해 공부하고, 음악회와 오페라에 관한 정보를 모아 음악회장으로 향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레코드플레이어를 구입해 밤새 음악을 듣고, 일을 할 땐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면서 또 다른 행복을 느낀다. 음악가들을 익힌 다음에는 작가

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글을 알게 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읽고 책 속의 이야기에 잠겨지낸다.

그는 표지판을 닦으면서 가곡을 부르고, 시를읊조리고, 소설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해진 이름의 표지판을 어루만지듯 닦으며 강연을 한다.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몰려왔고 대학에서는 강연 청탁을 해온다. 하지만 그는 “강연을 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교수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며 행복한 청소부로 머무른다는 이야기다.

이 얼마나 멋진 선택의 결말인가. 무지를 암으로 바꾸기 위해 지식을 쌓았고 즐거움을 위해 강연을 하다 교수직 청탁까지 받은 청소부 아저씨처럼 배움의 과정이 즐겁다면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힘써 배우면 누구든一家見을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책을 통해 깨닫는 나 또한 참 행복한 사람이다.



### 이달의 독자 포토



꼬마화가,  
담아두고 싶은 봄날  
여황순 분당구 미금일로

화가가 되려면 이젤이 꼭 필요하다는 일곱 살 딸아이입니다. 탄천변의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서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은 이미 꿈을 이룬 화가였습니다. 꼭 네 꿈이 이뤄지길 두 손 모아 기원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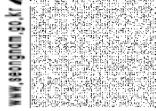


멀리서 응원해요, 성남FC

최광덕 분당구 야탑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동네 꼬마 녀석들이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같이 응원하자고 했더니, 저마다 개성 있는 포즈로 파이팅을 외쳐 주었다. 고맙다 얘들아, 또 보자.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위한**

**+ '초록 정원 도시' 성남 선포**

- **3대 비전:** 가까운 초록, 신나는 초록, 함께하는 초록
- **9개 약속 과제**
  - 성남을 하나로 잇는 녹색길
  - 내 집 앞 정원 만들기
  - 나눔가든 활성화
  - 성남에 색을 입히다
  - 공원이 문화를 만나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녹색서비스
  - 초록 사랑방 운영
  - 끌림 36.5°C 캠페인
  - 초록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 **27개 실천 사업:** 생활 정원 확대와 그린복지 실천
  - 1가구 1화분 가꾸기, 게릴라 가드닝, 시민녹화 공모사업 등

**+ 2016 제4회 경기정원박람회 유치**

- 2016년 10월 성남시청 공원에서 개최
- 12만4,780m<sup>2</sup> 규모의 박람회장 조성
  - 모델 · 참여 정원 등 정원작품 전시장, 화초 문화체험 공간, 정원용품 판매장, 각종 문화행사장
-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 제시,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 위해 2년에 한 번 개최

**+ 중앙공원에**

**100만 송이 상사화 꽃길 조성**

- 올해 6월부터 매년 20만 본씩 2019년까지 식재

성남시 녹지과 조경팀 031-729-4312



초록의 탄천